언약은 버리고 하나님만 가진다

(시편 89:1~52)

1.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2.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3.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4.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언약은 버리고 하나님만 가진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언약은 버리고 하나님만 가진다'
이것이 잘못될 경우에는 언약만 받고 하나님은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약속은 버리고 하나님을 가져야 하는데, 오히려 약속은 받고 하나님은 버린 신앙 상태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목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이 신약(新約)성경과 구약(舊約)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취하고 언약을 버린다든지 반대로 언약만을 취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언약과 하나님을 동시에 취해야지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우리에게는 약속이지만 하나님께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대한 계획을 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지를 알아야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발린트 증후군(Balint's syndrome)"이라는 의학적 용어를 예로 들어봅니다. 눈으로 사물을 보면 수정체를 통해서 망막에 사물이 비치게 됩니다. 이때에 뇌가 망막에 비친 상만을 보고 주변의 대상을 무시하는 현상이 발린트 증후군입니다. 망막중심에 잡힌 물체 외에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오직 한 가지 물체 밖에는 볼 수 없는 이 증후군을 "동시인식불능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어떤 사람 앞에서 오른손에는 자동차 키를 들고 왼손에는 지갑을 든 손을 내밀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두 가지를 다 보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식한 대로 지

갑과 자동차 키를 연관 지은 사고를 하여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차를 타고 가서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발린트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손을 붙여서 내밀어도 한 가지 대상만을 인식합니다. 자동차 키를 보고 있을 때에는 지갑을 볼 수 없습니다. 눈을 돌릴 때에만 지갑을 볼 수 있습니다.
발린트 증후군을 우리의 마음에 적용하면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모양은 성막의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은 우리 마음의 심리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부족한 지식으로나마 알고 있는 심리학 이론 중에서 성전의 심리학 이론만큼 완벽한 이론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능력 있고 유능한 심리학자들이 구약에 나오는 성전의 모습대로 심리학을 전개시킬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만을 바랍니다.

인간은 마음의 공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채워질 때에 기쁨과 만족이 생겨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인데 채울 것이 없다고 느낄 때에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몸이 있음으로서 만나는 것들로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마음 채움 거리가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그것을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육체편향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흡입구를 어디로 향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이름을 붙잡음으로서 흡입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목표물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가지면 곧 돈이 내 마음을 채워주고 만족과 기쁨을 줄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자녀의 이름을 붙잡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지성소에서 마음을 채워줄 수 있으리라 믿어지는 존재의 이름을 붙잡을 때에 발린트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동시에 두 개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흡입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름 밖에는 붙잡을 수 없습니다. 먼저 붙잡은 이름 뒤로 만나는 대상들은 그에 종속되게 됩니다.
돈을 붙잡은 마음으로 친구를 만나면 돈과 연관 지어집니다.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돈이 마음 채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종속적 연관성 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우리 마음의 지성소는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믿어지는 존재의 이름을 발린트 증후군에 의해서 단 하나만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해 다윗의 나라가 영속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러한 다윗 언약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이러한 확신 못지않게 강렬한 회의와 고통스러운 마음이 표출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사랑과 인자하심에 근거된 약속과 당면한 현실과의 괴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부터 비롯된 약속을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믿고 있는데 주어진 현실은 생각 같지 않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영속되리라고 하셨지만 현재 처한 상황을 보면 나라가 곧 망할 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지금 현재 겪는 위기상황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윗 언약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한 시가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의문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시를 마칩니다.

이러한 서술을 바탕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 시의 배경을 르호보암의 통치시절로 추정합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북 왕국과 남 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남 왕국 유다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 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 왕 제오 년에 애굽 왕 시삭이 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상 14장, 역대하 12장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나라가 망한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다윗의 나라가 영속되리라는 약속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특히 시인은 사무엘하 7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대한 의문을 드러냅니다. 우선 13절을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솔로몬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4~15절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본 시의 30~37절에 보면 사람이 잘못하면 인생의 채찍질을 통해서라도 경책하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사울처럼 버리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애굽 왕 시삭의 침공을 당해 겪는 어려움을 보니 나라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가 영속하리라는 약속을 하신 적도 없다는 듯이 행동하고 계신다며 따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침략을 당해서 약탈을 당했지만 망하지 않도록 보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질문에 대해 우리도 같은 심정이 되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너희의 삶이 복지의 삶이 되리라,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말라 다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라면 우리는 복지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경책하고 끌고 가시는 한이 있더라도 약속하신대로 복지를 살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2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동원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오 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라고 하였습니다. 르호보암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애굽 왕 시삭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알게 하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라고 하는 대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시인이 구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버린 선민들의 관계를 연관 지어 생각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발린트 증후군으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먹는 것 마시는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내일 준비된 에덴과 복지가 있으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비교될 수 없는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깨지지 않는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약속을 붙잡아도 도대체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복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을 들고 오실 때에는 약속을 붙잡으라고 하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태도가 사뭇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들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반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도무지 그 약속을 붙잡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집사인 엘리에셀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 하고, 애굽 여자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에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달

라고 합니다. 약속을 붙잡는 모습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에 약속을 믿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믿은 약속을 붙잡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이 아닌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어려운 점이기도 하지만 면도칼처럼 예리함으로 구분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에게나 이 땅의 삶에 대해 이런저런 약속을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까지 계획하고 계시니, 삶에 대해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 되심을 선언하심이 바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복지를 언제 주실지 손꼽아 기다리며 예의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복지를 계획하고 계심을 알았으니, 이제 삶에 대해 책임감이나 의욕을 가질 필요 없이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지성소는 발린트 증후군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고 여기는 동안에는 정작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오른손에 자동차 키를 들고 왼손에는 지갑을 들고 동시에 내밀어도 발린트 증후군은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지성소는 기쁨과 만족을 주리라 믿어지는 대상을 하나만 붙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 세상에서 지속 될 굳건한 나라를 마음의 지성소에서 붙잡았기에 정작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곧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나타납니다. 약속을 들고 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문제들에까지도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삶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가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으려고 하였습니다. 마음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약속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발린트 증후군처럼 약속을 붙잡는 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내게 기쁨과 만족이 되심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버림이고 마음의 지성소에서 결정되는 일입니다. 마음의 지성소에서 돈을 붙잡은 사람들을 향해 목사님이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라는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 대신 돈을 붙잡는 마음이 확고해집니다. 십일조도 열심히 하고 충성봉사를 하면서 부자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러한 마음은 돈과 연관된 하나님의 약속이라

는 거짓말 설교를 붙잡으면서 하나님은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유일한 기쁨과 만족의 근거로서만 붙잡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돈 건강 기쁨 출세 자식의 형통 권력 지위 승진 등이 마음의 기쁨인 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결코 이루어주시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기쁨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배우자든 자녀든 사업이든 그것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생겨난 기쁨을 표현하는 대상이지 결코 내게 기쁨을 주는 원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의 지성소는 발린트 증후군을 생래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일지라도 그것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은 버려집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이면서 하나님의 능동성과 자발성과 사랑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마치 하나님을 채무자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약속을 하셨으니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약속하신 것이지 결코 우리에게 빚진 채무자가 아니며 우리도 채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본래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삶을 책임지겠다고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본래 이 삶에 대한 아름다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해 조금도 신경 쓰지 말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33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만을 믿고 먹을 것 마실 것이 언제 주어질 것인가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신경 쓰는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에 대해 신경 써야 합니다. 약속은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바라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시선의 목표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잊어버려도 좋다는 설득의 작업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인은 다윗의 후손된 입장으로서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버렸기에 애굽 왕 시삭의 침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이유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가지라고 하심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약속을 통해서 세상을 더욱더 주시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돈과 건강을 기쁨으로 여기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면서 그 이름을 부르려는 모순된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만족과 기쁨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만 관심을 두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실 것만 손꼽아 기다린다면 마음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버려집니다.

인간에게는 생래적으로 이 세상 것을 붙잡고 잘되기를 바라는 원죄적 체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체질을 억제하기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를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외의 이름을 붙잡거나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으려 할 때에, 돌이켜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그 아름다운 축복의 내용들이 가득한 약속들에 대해서조차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칠십 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20절에 주님께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쁨이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니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곧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곧 성경 전체를 통해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천명하신 것이며,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늘이어야 함을 약속이라는 형태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발린트 증후군에 걸려있는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약속된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님 마음대로 이루어지되, 우리의 마음은 이 땅에서 영생의 기쁨을 맛보고 영생에 진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